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인권과 사회책임투자 국제컨퍼런스”

일시: 2008. 12. 2(화) PM 1:30-6: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머니투데이

□ Session 1 SRI 와 인권

주제강연: 인권존중 사회책임투자의 세계동향과 전망

Amy Domini, CEO(Domini social Investment)

‘SRI의 구루(정신적 스승)’로 알려진 에이미 도미니 도미니사회투자그룹 회장은 오늘날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목표를 잃고 폭주하는 현재의 금융과 상거래를 기민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투자자’이며,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한 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으로 사회책임투자는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유력한 도구라고 주장함.

자신은 전 세계적으로 500개가 넘는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첫째, 환경이나 인간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둘째, 건강한 기업발전을 위해 주주 총회에 참여하고, 때로는 기업 경영진들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며, 셋째, 지역사회개발신용조합에 공탁하고, 마이크로크레딧 대출을 지원하며 새로운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힘. Domini 400 사회지수 성과는 지난 8년 동안 S&P 500의 투자수익율 보다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음.

도미니는 다르푸르 학살, 미얀마 독재정권, 공급사슬의 노동착취, 노예노동 등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관련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사회책임투자자들은 이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통해 개선시켜 나간다고 밝힘. 예를 들어 미국 대부분의 SRI 펀드는 미얀마 군부에 직접 전략적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도미니 사회책임투자펀드도 미얀마 군부를 통해 매년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도요타 썬우샤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도요타 주식을 사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는 경험을 소개함. 이와 관련 도미니는 처음에는 무역파트너의 행동까지 책임질 수 없었던 도요타 자동차가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도요타 썬우샤 경영진들에게 전달했다며 사회책임투자자들의 행동이 기업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커뮤니케이션의 상징인 모바일과 관련, 정부의 검열제도에 연루되어 있는 차이나 모바일의 주식매수를 피하고 있으며, IBM은 30년 전에 남아공에서 신분증 카드시스템을 운영했던 일에 대해 현재 집단 소송에 걸려 있다는 사례를 들며 한번 인권침해 관련 사고가 나면 그 기억은 수십년간 해당기업을 따라 다닌다며 기업들이 인권경영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사회책임투자 분야는 NGO, 종교 기관, 기타 보편적 인간의 존엄성에 관심이 있는 그룹들이, 기업경영진들과의 건설적인 대화참여를 통해,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책임투자분야 종사자들은 CSR 보고서발간 요구를 증가시켜야 하며, 우리의 이상을 지지하는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함. 현실 세계와 금융자본 게임의 경계에 서있는 SRI 투자자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깨끗한 지구를 위해 금융자본을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Discussion 1 SRI 를 통한 일할 권리 등 경제적 권리 제공 방안 및 국내 SRI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 사례

패널 1: 이종수 상임이사(사회연대은행/Aon 코리아 사장)

금융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고, 사회 제도는 누구나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함. 금융소외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임.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금융배제 계층지원을 위한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음. 지역사회개발대출펀드, 지역사회개발은행, 지역사회개발신용조합과 같은 지역사회 풀뿌리 금융기관들은 투자자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연결해주고, 정부, NGO 등과 제휴를 하기도 하며, 대형연기금들이 많은 재원을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에 배정하기도 함.

한국사회에서도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서민들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융자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일할 권리를 높이는 지역사회 투자(Community Investing)의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이러한 대안금융, 풀뿌리금융기관의 접근은 최근의 금융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착안점임.

패널 2: 홍성기 운용전략실장(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 3대 연기이자 국내 최대 사회책임투자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8년 10월 말 현재 6개 자산운용사에 5,000억 원을 운용하고 있고, 연내 자산운용사를 추가선정하여 총 1,5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원칙은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고 아울러 기업의 CSR 경영을 유도하는 것이고, 둘째, 기존의 재무적인 분석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 등 기업의 비계량적인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스크리닝 기법을 반드시 사용한다고 함.

사회책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홍보와 투자실익의 입증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도출이 중요하며, 사회일각에서 주장하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힘.

□ Session 2 연기금 투자와 인권

발제 1: 노르웨이연기금의 인권중중 반투자전략의 내용과 의의

Andreas Follesdal, Director of Research(Norwegian Center for Human Rights)

세계 국부연금 펀드 2 위인 노르웨이정부연기금의 안드레아스 폴레스달 윤리위원은 기초발제를 통해 노르웨이 연기금은 장기적 재무 이익을 보호하고, 윤리기준에 위배되는 투자를 피하는 투자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즉 이를 위해 기본적 인권 원칙을 위반하는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부정적 배제전략(negative screening)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권고하고, 심각하고 구조적인 인권침해, 심각한 환경파괴 및 총체적인 부패 연류 등에 주목하는 케이스별 기업 배제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2005 년 강제노동 및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노동권과 인권기준을 위반한 다국적 기업 월마트(Wal-Mart), 그리고 2006 년 아동 노동자를 고용한 인도의 몬산토(Monsanto)를 이러한 투자배제전략의 사례로 설명함. 특히 노르웨이 연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 중 대량살상무기(집속탄)를 생산하고 있는 2 개 기업에 대한 투자배제과정도 설명함.

노르웨이 연기금의 인권침해 연류기업에 대한 투자배제전략은 강제적, 법적 차원의 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을 꾀하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등 공공성이 강한 연기금들은 사회적책임투자에 적극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하면서 수익의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 Discussion 2 국내 연기금 SRI 를 통한 인권존중 투자 확대 방안

패널 1: 이운규 자금운용단장(사학연금관리공단)

국내 금융시장의 주요한 장기투자자이자 사회적책임투자자인 사학연금관리공단은 현재 사회적책임투자펀드에 200 억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힘. SRI 펀드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3000 조에 이르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약 2 조에 규모로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음.

사학연금의 사회적책임투자펀드의 과거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사회공헌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여 경영리스크 축소 등을 통해 기업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회적책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패널 2: 박창균 교수(중앙대 경영학과)

정부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중소기업금융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사회적책임투자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투자규모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기금 또는 기업연금의 시장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힘. 또한 정부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과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적책임투자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공공성의 원칙에 의거 충분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투자 자본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노르웨이 등 선진국의 예를 참고하여 추상적인 수준의 투자원칙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준의 투자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평가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Session 3 펀드투자와 인권

발제 2: 국내 기업의 인권수준과 사회적책임투자

류영재 리서치센터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서스틴베스트 대표)

영국 최대 연기금펀드 헤르메스의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활동했던 류영재 한국책임투자포럼 리서치센터장(서스틴베스트 대표)은 인권경영 수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발표함. 먼저 해외기업의 사례를 통해 인권이슈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국내기업의 인권경영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주가변동을 분석하였으며, H 기업의 사례를 통해 인권이슈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

국내 상장 기업 164 개 곳의 기업 보고서, 공시정보 등을 분석하여 인권경영점수(ESGFI Model: 서스틴베스트가 개발한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프레임워크로, 환경(E), 사회(S), 지배 구조(G), 내부 역량(I)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를 만들어 점수가 높은 21 종목들을 ‘A 그룹’으로, 점수가 낮은 24 종목을



‘B 그룹’으로 분류하여 최근 2년 10개월 간(2006년 1월 2일~2008년 10월 31일)의 누적수익률 추이를 분석함.

분석 결과, 최종 누적 수익률은 인권 수준 상위 그룹이 하위 그룹보다 23.28%p 상회하며, 이를 통해 주가 수익 측면에서, 인권 경영 성과가 좋은 기업이 나쁜 기업보다 안정적이고 특히 하락 장세에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밝힘. 또한 국내 기업들은 규모나 업종에 따라 인권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다른 인권 이슈들 사이에서도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봄.

그러나 아직 우리기업들은 인권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전략적으로 인권 이슈에 대응하는 기업들이 적다는 점이며, 첫째, 투자가가 공정하게 습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업의 정보 공개, 둘째, 안정적 주가 실적 측면에서 기업 분석에 인권이슈를 반영하고, 셋째 해외의 글로벌 인권기준들에 대한 관심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Discussion 3 인권경영으로 높이는 기업 및 투자수익의 지속가능성

패널 1: 김영준 자산운용 본부(NH-CA)

첫번째, 선택된 개별 항목들이 과연 기업의 인권 수준 측정의 대표치로서 포괄성과 충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직장 내에서의 인권 항목으로 5개(인권을 위한 원칙, 노동 조합, 인권직원교육, 고발체계, 직장 남녀평등), 인권 기업으로서의 명성 관련 항목 2개(해외 인권 유린, 고용평등), 고용 평등 관련법 이상의 10개 항목을 선정하였는데, 이들 평가척도의 대표성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임. 두번째, 강제성이 높은 고용 평등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 준수 상태가 양호하나, 상대적으로 자발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세번째, 업종별 점수 분포의 특이성인데, 유틸리티, 금융, 텔레콤 등의 점수가 높게 나오고, 대기업 그룹의 점수가 중소기업그룹의 점수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러한 점수차가 과연 유의한 인권의 차이를 나타내는가 하는 여부는 좀 더 검토 해야 할 것임. 네 번째,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인권 수준이 낮은 그룹의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오고, 약세장에서는 인권 수준이 높은 기업 그룹의 수익률이 더 높게 조사됨.

인권 문제가 기업 경영의 중요 요소라는 점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러한 인식의 확산을 실질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좀 더 가치 창조적인 접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론과 실천적 연구가 필요함.

패널 2: 고창국 사회공헌팀 부장(SKT)

한국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970년대부터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제기준이 발전되고 이해관계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일반시민의 CSR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기업 역시 사회공헌을 넘어 CSR에 의한 인권경영은 강제력이 낮은 영역까지도 자발성에 기초한 참여를 통해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주장함. 이에 따라 인권경영도 구성원의 인권을 넘어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고려하고, 법적인 테두리의 인권을 넘어 기업시민으로서의 인권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SRI가 활성화되고, 기업 인권경영의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가 계속 뒷받침 된다면 인권경영에 대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SK 텔레콤은 인권 경영을 구성원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의 인권 경영으로 확대하여 실천하고 있음. 우선 구성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원 다양성 확보, 인적 자원 개발, 구성원 보호, 인권 존중, 노사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고객의 인권을 위해서는 고객 정보 보호, 고객의 소리 대응, Clear Pricing, 건전한 통신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Partner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업 윤리 실천, Business Partner의 지속가능경영 등을 실천하고, 사회 전체의 인권을 위해서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에서 인권활동을 지원하고 정보 취약 계층이 정보화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